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급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2003년도 교회일꾼 임명식 갖는다

서리집사 · 교구일꾼 · 찬양대원 12월8일(주) 임명

12월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 일년동안 우리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의 섬김을 다할 교회일꾼을 임명하는 달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다음 주일이 되는 8일 주일에 배시간에 내년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하게될 교구일꾼 서리집사 찬양대원 등을 임명하게 된다.

교회는 2003년 서리집사로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내 각 부서에서 섬김의 사역 감당하게 되는 이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 올바르게 감당

토록 기도한다.

또한 교구일꾼으로 각 교구에서 간사와 교구 담당 교역자와 긴밀히 협조하며 다락방 식구들의 신앙 생활을 이끌게 되는 교구일꾼 명단이 지난주 당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어 오늘 순례자 4면에 게재되어 있다. 교구일꾼들은 본인이 속한 교구의 일꾼들을 확인하여 교구살림이 원활하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권사회 총회

4일(수) 오후1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살롬 권사회와 권사회 총회가 오는 12월4일(수) 수요일부 예배 후인 1시 30분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게 된다.

총회에서는 신규 임원단의 교체식이 있게 된다. 각 권사회에서는 해당되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

수화교실 개강

2003년 1월 첫 주일

우리교회 예배다부는 복음의 불모지 농아인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2003년 1월 첫 주부터 수화교실 초급반과 고급반을 개강한다.

평소 농아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수화를 배우지 못한 성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강의시간은 매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606호실에서 열린다.

2002 메시아 대 연주회

10일(화)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올 한해를 보내며 우리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 찬양대가 연합하여 준비하여 온 웬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 2002 메시아 대 연주회가 오는 10일(화)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다. 많은 성도들의 관람을 바란다.

이 · 미용 선교회 조직되다

이미 설립되어 활동해 오던 직능별선교회(실업인, 의료인, 학원)에 이어 이 · 미용선교회(준비위원장-김종윤집사)가 지난 11월 15일(금) 오후 7시에 창립예배 및 총회를 갖고 임원을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 수 차례 준비모임을 가진 후 이번엔 본격적인 출발에 들어갔으며 이 · 미용 기능보유자와 보조자 및 기도와 물질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란다.

- 회장: 김종윤 집사 부회장: 김명숙 권사
- 총무: 심상필 집사 서기: 이자혁 집사
- 회계: 박현영 집사

금주의 성구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s opened toward Jerusalem.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Daniel 6:10)

11월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11월중 등록된 새가족을 주의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 앞에 소개하고 따뜻하게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의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 중에 갖는다. 11월중에 등록된 모든 새가족은 찬양예배에 참석하여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11월중 등록된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운영 강원배 강해진 강현욱 고광환 고금란 고수경 고운호 광혜정 권혜옥 김귀홍 김신애김옥순 김우정 김중석 김화순 류주희 문금단 박수자 박영자 박혜미 배승우 배은정 백보영서은자 신정범 오경원 오상택 오세일 우정옥 유근영 윤선에 윤숙자 이계자 이기연 이수련 이영우 이영주 이우정 이운영 이정아 이정열 이정윤 이정희 이진구 이찬식 이형규 이혜숙 임혜련 장석근 장창식 정진문 지 은 최시현 (이상 54명)

12월 행사계획표

- 12. 4(수) 권사회 총회(권사회, 살롬권사회)
- 8(주) 교구일꾼 · 서리집사 · 찬양대원 임명 교구총회
- 15(주) 교사임명
- 18(수) 12월 학습, 세례식
- 22(주) 성탄 감사 음악예배(가브리엘 찬양대)
- 24(화) 성탄축하 전야(교회학교)
- 25(수) 성탄
- 29(주) 교회학교 졸업식
권사 장로 은퇴식
특별 제직회

소선지서 강해-호세아

이스라엘의 갈라진 마음

(호세아 10장 1 - 15절)



이중윤 목사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재목이 아닌 열매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가 부를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의 제단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1. 두 마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2절).

두 마음은 히브리어로 '칼라크'라고 하고 영어성경에서는 smooth(미끄러운), oily(기름기가 있는), sleek(매끄러운)라고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어 맡은 매끄럽게 하면서 행위는 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마음(single mind)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입니다. 고벨은 호세아와 결혼하여 자녀들도 낳았고 나름대로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호세아에게 불성실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불성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2절).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쳐서 깨뜨리신다고 했으니 이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앗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두려워하지 아

하나님은 의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의가 없는 사랑과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항상 의가 있어야 하고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 속에서 행하고, 의를 말하면서 그 속에 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니하모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3절).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들의 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니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보호막인 국가까지도 심판하시어 무너뜨리십니다.

2. 진실하지 않은 고백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발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도다"(4절).

이스라엘은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속이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만 하고 속으로는 엉뚱한 것을 하므로 독초와 같이 뽑혀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스라엘은 세상의 풍습과 방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발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독초는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에 태워집니다.

3. 표리부동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악을 행하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체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의인인 체 하였습니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벤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6절).

벤아웬은 헛된 것의 집을 말합니다. 벤엘(하나님의 집)이 벤아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왕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벤엘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송아지를 버릴 만도 한데 이스라엘은 제사장들로,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금송아지를 계속 가까이하였습니다.

사람이 한 번 비진리에 빠지면 어두움이 어두움인 것을 모르게 됩니다. 죄를 한 번 짓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마치 수렁에 빠지는 사람과 같게 됩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쫄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 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7-8절).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의 침략을 받을 때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산당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정복자의 가해를 피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 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9절).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한 번은 제사장 레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두워져서 잠잘 곳을 찾던 차에 늙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유할 곳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때 타락한 기브아 청년들이 몰려와서 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내어 제사장과 더불어 남색을 행했습니다. 남색은 영어로 sodomite라고 하며 소돔사람이 범한 죄를 의미합니다. 늙은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자신의 딸을 그들에게 데려와 제사장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청년들은 제사장을 풀어주지 않고 그의 딸까지 범했습니다. 이튿날 그의 딸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얼마나 비통했는지 여자의 몸을 열 두 조각을 내어 열 두 지파에 보내어 기브아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기브아 사람들이 지은 잔인한 죄를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책망하던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한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멩에를 매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11절).

이스라엘은 모든 일이 원활하였으나 이제는 고통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4. 목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의 뜻을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12절).

하나님은 의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의가 없는 사랑과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항상 의가 있어야 하고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 속에서 행하고, 의를 말하면서 그 속에 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목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부패한 사상과 행동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오스에서 보내온 편지

나의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평강이 온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메콩강을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나라와 훌륭한 교회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리오스와 태국을 가르는 메콩강변에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월남, 5개국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 140명이 새벽부터 밤까지 지난 화요일(26일)부터 토요일(30일)까지 특강, 설교, 토의, 기도의 연속으로 천국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웃고 울고 격려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하는 영적 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주간은 소중한 시간들이었

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 같은 선교사 재훈련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지원케 된 것을 크게 감사하고 기도로 물질로 온 교회가 성원해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불교의 나라, 공산주의 국가, 세속화 된 백성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중국 스리랑카 미국 호주 그리고 한국에서도 참여하는 이들이 있어 참으로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토요일(30일)에 방콕을 거쳐 월남으로 가서 주일에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2일)에 현지 선교사님들 세미나와 간담회 그리고 단기 선교팀 파송지를 모색하는 사역과 KIMCHI 세미나 준비를 위한 작업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오정수 이영기 김태기 왕경래 장로님들 모두 기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부족한 중과 더불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보고감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12월2일(월) 밤 자정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방콕을 거쳐 서울에는 12월3일(화) 오전 8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시 뵈 때까지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02년 11월 28일 인도차이나에서 오정수, 김태기, 이영기, 왕경래, 홍순복, 이준용 드림입니다.

.....: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2 Timothy 1: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 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전인화 권사(살롬권사회장)

늙는 것은 자랑감도 아니요 또한 비굴함이나 억울함은 더더욱 아니다. 서산에 넘어가는 노을 빛 같은 우리 서울교회 늙은 권사님들 살롬권사회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부여받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분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고 몇 분 권사님이 자리에 옮겨 되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롬권사회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금년에도 은혜롭고 재미있게 작은 사명 감당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우리말 속담처럼 다소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흐려지고 고집은 늘어나서 자제하기 힘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앓을 자리 설자리를 잘 분별하면서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그러한 할머니들로 영원히 서울교회 성도들의 기억에 남는 살롬권사회원들이 되기를 바

랍니다. 늙은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욥에서 나오듯이 우리 권사님들 70년 80년 살아오신 지혜와 명철로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한결에서 교회와 후손들과 자신을 위해 기도 하는 살롬권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1년 동안 기도회를 인도하시느라 맘 흘리신 지혜영 전도사님 재치 있게 인도해나간 백영희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내년도 살롬권사회장으로 임명받고 보니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마 건강을 주셨으니 순종하며 능력주시는 자의 은혜를 입어 이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롬권사회 회원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각오와 다짐



이영희 권사(권사회 신임회장)

또 한해가 가고 있습니다. 몸되신 서울교회의 모든 부서에서는 좋은 끝맺음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2002년을 시작한 나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에게 2003년 새해에 권사회에서 중임을 맡아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어 모든 것에 부족한 저로서는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는 주님의 음성에 얽려 대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권사회는 70세까지의 180여명의 시무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설립 11주년 감사주일에는 37분의 새로운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일할 생각을 하니 마음 든든할 뿐입니다. 권사회에서는 교회설립 때부터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비롯한 각종 교회행사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의 서울교회가 있기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두에 서신 당회장 목사님, 교역자 여러분, 장로님 그리고 모든 체직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셔서 살롬 권사회에 속한 선배 권사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권사님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년의 세월 속에 병중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연약한 권사님들을 찾아가 섬기고 선배 권사님들의 신앙의 본을 따르려고 합니다.

또한 모이기에 힘쓰며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권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다짐하면서 글을 줄입니다.

2002년 한해를 돌아 보며



신용식 집사(전 스테반회 간사)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스테반회 간사로 임명받고 일을 시작할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헌신을 못한 것이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생명을 바쳐가며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스테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마음에 꽉 차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진실된 믿음과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부족했습니다. 중직을 맡아 일할 때는 교회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한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우선 순위로 착각하고 일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저에게는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지나가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섭리가 교회와 개인 일까지 간섭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조자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던 일들을 직접 접하고 처리해 나가면서 애로사항과 일처리의 우선 순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스테반 회원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봉사를 바라보면서 저에게는 진실된 헌신과 봉사가 부족했

고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시고 시간 지식 가족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절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활용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스테반 집사의 신앙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역지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충만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는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동안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교구일꾼

2003년도 남선교회·여전도회 임원 명단

Table listing 2003 church district workers with columns for district, director, and deputy director. Lists names like 김광룡, 최인수, 이충엽, etc.

Table listing 2003 church district workers with columns for district, director, and deputy director. Lists names like 유종관, 이혜선, 박연순, etc.

Table listing 2003 church district workers for 남선교회 and 지도교역자 with columns for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Table listing 2003 church district workers for 여전도회 and 지도교역자 with columns for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2003년 교구간사

Table listing 2003 church district workers for 간사 with columns for 교구 and 간사 names.

대림절(待臨節) -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전통적으로 대강절은 2천년전 아기요 탄생 하셨던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원하면서 긴장과 절제, 그리고 설레임이 교차하는 계절입니다.

동정

- 이사: 전수자 컨사 (12교구로) 031-276-6124
김우숙 컨사 (14교구로) 개포 주공 1단지 APT 579-4501
이재운 집사 이용자 컨사 용인시 상현동 서원마을 금호APT3차 505-1702
(031)262-0450
☞ 금주의 식사제공: 김태기 창로 윤문자 컨사 가정 (자녀 결혼식을 은혜 중에 마치고)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X 1188KHz) -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 감사하는 성도·성숙한 교회되도록
2.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대회와 목사님 일행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Table listing church services and meetings with columns for 구분, 시간, and details.

교회약도

